

건강과 수행

모낭충, 과연 피부의 적인가 아니면 동반자인가?

개체수가 많지 않으면 큰 문제 안 돼  
오히려 피지를 줄여줘

우리 주변에 얼굴이나 머리가 가려워서 긁어대는 사람들을 간혹 볼 수 있는데 왜 그렇게 가려운지 그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많다. 요즘 들어 여드름과 피부 트러블의 적인 모낭충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오늘은 이 모낭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평소 정상적인 피부부가 별 이유 없이 가렵거나 붉은 반점이나 트러블이 생겨 병원을 찾게 되면 여러 원인 중에서 모낭충을 한 번 체크해

무리 세수를 해봐도 식초가 진피층까지 도달하기가 어려워 모낭충을 직접 죽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쯤에서 우리는 TV프로그램의 엄청난 광고효과를 믿고 넘어가야 한다. 한 때 TV프로에서 모낭충 검사를 한 다음 전자현미경으로 확대한 사진이나 꼬물꼬물 움직이는 다소

협오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으로 공포마케팅을 한 적이 있었다. 거기에 모낭충들은 모공에 염증을 일으켜서 탈모를 유발한다거나 여드름 및 각종 피부 질환들을 유

발할 수 있다는 내용이 덧붙었으니 이러한 내용들이 퍼지면서 모낭충이란 높은 반드시 제거해야 할 대상처럼 인식이 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사실 모낭충은 오랜 옛날부터 인간의 몸에서 같이 살아온 존재로서 피지를 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청소부 역할을 하는 피부 생태계의 일원으로 봐야 한다.

그리고 모낭충을 굳이 제거할 필요가 없는 또 다른 이유는 관리방법이 아주 간단하기 때문이다. 우선 약산성 세안으로 모낭충들이 살기 힘든 약산성 환경을 만들어주고 모낭충의 먹이가 되는 피지를 줄여주는 음식조절을 하면 그만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식초를 이용한 세안법은 식초보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세안용 제품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모낭충은 오랜 기간 동안 사람들과 함께 해 왔고 급격하게 숫자가 늘어나지 않으면 크게 피부트러블도 유발하지 않으며 오히려 과다 피지를 줄여주는 역할도 하는 이로온 존재들이다. 그럼에도 모낭충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지 않고 배척하고 이를 공포마케팅으로 이용하는 상술의 현실이 안타까울 뿐이다. \* 이승우 기자



첫회, 꿈속 어떤 분이 엄마라고 칭하는데...

고향집 앞에 푸르른 숲으로 우거진 산이 있다. 진달래가 흐드러지게 핀 봄이면 새들이 지저귀는 노래소리가 들려오고, “야호” 외치면 메아리가 되 돌아온다. 고향을 생각하고 있노라면 “국화꽃 저버린 가을 뜨락에 창 열면 하얗게 눈서리 내리고...”라는 고향의 노래가 생각난다.

고향의 노래

우리집 마당 네 귀퉁이에는 배나무가 있고, 한쪽 울타리 철조망 사이로 골담초라는 노란 꽃이 핀다. 아카시아 꽃잎과 비슷한 것이 신기하면서도 정겹고 좋다. 꽃들 위로 호랑나비와 노란 나비, 흰 나비 등 여러 나비가 날아다니다 보면 저절로 봄의 향연에 귀 기울이게 된다. 철조망이 끝나는 곳에는 탱자나무꽃이 다른 울타리도 어우러져 연결되면서 언덕너머 배나무꽃, 복숭아꽃들이 봄을 노래한다. 탱자나무 위에 핀 하늘타리꽃은 여름날의 상쾌한 아침을 느끼게 한다. 하얀 그 꽃이 그렇게 멋있다.

산으로 연결된 뒤뜰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가 있다. 가죽나무, 율나무, 찔레나무, 드릅나무, 밤나무, 대나무... 풀 언덕에는 키 큰 회양목 두 그루와 작은 나무 예닐곱 그루가 있고, 그 앞에 수석이 여러 쌍이 있다. 그중 정사 각형 모양으로 일정한 간격을 두고 위가 뾰족한 모양은 크는 돌이라고 불렀다. 도장나무라고 부르는 회양목 가까이 있는 울타리는 옆집과 경계를 짓는 울타리인데 그 위로 으름덩쿨나무가 가득 자라 신선한 풍경을 자아낸다. 겨울 밤 소쩍새가 소쩍소쩍 울 때 느끼는 정취란 또 어떤가!

기억 속에 있는 고향집 풍경을 묘사하다 보니 좀 장황해졌지만 한마디로 즐긴다면 풀과 꽃과 나무가 어우러진 경치 좋은 산골이 되겠다.

동네 앞 신작로로 철광석을 실은 트럭이 다녔다. 뒤쪽에 철광산이 있었으니 광산촌이다. 이따금 광 소리가 나면 남포 터트린다고 했다. 광산에서 나는



무궁화합창단 소프라노로 활동하고 있는 임숙빈 씨(뒷줄 중앙)

목적 없는 삶에 대한 회의와 그 탈출구로서  
종교를 만났다. 그 후 꿈속에서 만난  
어떤 분이 자신을 엄마라고 하면서 7천년 만에  
너를 만났다고 했다. 신기한 꿈이었다.

소리다. 신작로에는 비가 오거나 무슨 일로 우뚝한 곳이 생기면 차가 폭 빠지기 때문에 그곳을 철광석 돌맹이로 메꾸었다. 철 함유량에 따라 색깔이 다른데 노란색 띠 돌은 유화철이라고 했다. 고향집과 그곳의 주위 풍경은 내 것이라 아무도 터치지 않을 것만 같았는데 이제는 고향의 노래처럼 아득한 추억의 노래가 되어버렸다.

자유를 갈망하다

종교에 대한 관심은 목적 없는 삶에 대한 회의와 그 탈출구로서 시작했다. 객지생활에서 고향이란 안식처가 사라짐이 힘든 삶을 더욱 힘들게 했다. 간헐적이라는 느낌, 난 자유를 갈망했다. 하나님을 부르짖을 것인가, 부처를 찾을 것인가? 고민을 했다.

발길을 절이라는 곳으로 돌렸다. 언니의 소개로 장미자 선생님을 만났다. 내가 싫어하는 캄캄한 절은 아니었다. 큰 길가에 있었고, 큰 금동불상을 모시고 큰스님이라는 분이 설법을 하고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스님의 법문을 듣고 치유를 받거나 소망을 이룬다

는 말을 해주었다. 주인공에게 말기라는 설법을 하는 곳(한마음선원)이었다. 그분은 나름대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고, 그곳 사람들은 그스님이 도통을 했다고 믿었다. 윤회를 믿으며, 사람의 손길이 닿으면 아무리 흉한 뱀도 사람으로 환생하기 때문에 뱀에게도 따뜻한 손길을 주는 그런 분이란다.

나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절이라는 곳을 다녀온 후 얼마 안 돼서 꿈을 꾸었다. 이해하기 어려운 이상한 꿈이었다. 조카들을 데리고 놀다가 고개 정상에서 어떤 분을 만났다. 그분은 긴 검은 드레스의 파마머리를 한 여자였다. 귀부인이었다. 얼굴은 동그랗고 빨랐다. “내가 네 엄마다. 7천년 만에 만났구나” 하면서 손바닥을 마주쳤다. 하나님이냐 부처님이냐 비교 중이었던 때다.

그 후 난 하나님을 찾아서 떠났다. 처음 성당 미사에 참례를 했다. 약간의 기대를 걸고 있었다. 신부님의 강론시간에 ‘거룩한 하나님’이란 말이 그 신부님 입에서 나오기를 기대했지만 예

수만 열심히 찬양을 했다. 실망이 컸다. 거룩하신 하나님 소리를 하길 바랬는데... 신부나 신자들이 다 미쳤구나. 성당 이전 그만이라고 생각하면서 나왔다.

그날 밤 꿈을 꾸었다. 황홀했다. 내게 환한 빛이 보였다. 그리고 말씀이 들려왔다. “믿으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더 밝고 크게 빛이 보인 후 사라졌다. 주님께서 보여주는 이슬과 같은 빛이었다.

꿈을 꾸고 후 마음을 돌려 다시 성당으로 발을 내디뎠다. 그리고 일요일마다 6개월간 교육을 받았다. 세례를 받고 귀의하려 했다. 하지만 세례를 받지 못했다. 면담 중 통話が 되지 않았다.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고, 이해를 할 수 없었다. 신이란 이름으로 신부님이 말을 했고 가르쳤지만 이해가 가지 않았다. 일요일 미사에 빠진다는 것은 죄이며,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살다 보면 빠질 수 있지 그게 죄가 된다면 웃기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그 후 1년 방황을 했다. 우연히 뒤적던 앙드레 지이드가 쓴 목마른 영혼과의 대화 중 목시록에 있는 성경구절이 와 닿았다. “나는 네가 뜨겁거나 차지도 않으며, 미지근하면 뱀이 버린다(묵 3:16)” 내가 너무 미지근했나보다라고 생각을 했다.

다시 성당으로 발길을 옮겼다. 명동 성당에서 예수회 수사님한테 6개월간 교육 수료 후 세례를 받고 성경공부를 했다. 12지파의 이름에 관한 뜻에 대해서도 설명을 들었다. 창세기와 출애굽기에 관한 내용으로 기억되는데 그 시대 그 주변의 나라 언어로써 성경의 뜻을 꿰 맞추어 설명을 해주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아무리 그래도 좋아하는 것은 있는 법 토요일 저녁 미사 시간은 좋아했다. 일요일을 대신한 대체 미사가 되었고, 라틴어로 진행되는 성음악 미사는 관촬게 느껴졌다.\*

보광패션 / 임숙빈

요즘 베스트셀러 책으로 <호모 데우스>는 ‘신이 된 인간’이라는 뜻이다.

생명공학을 통해 불멸을, 사이보그 공학을 통해 초인간적인 신성을, 뇌와 컴퓨터의 연결로 비유기체의 합성으로 이루어진 인간을 일컬어 <호모 데우스>라고 저자 유발 하라리는 명명한다.

구글이 신(神)이 되는 세상 온다

예루살렘 히브리대학교 역사학과 유발 하라리 교수가 예언하는 미래는 우주적 데이터처리시스템이 신이 될 것이고, 이 데이터처리시스템이라는 신은 모든 곳에 편재하여 모든 것을 통제하고, 인간은 이 데이터처리시스템 속으로 통합될 운명이 될 것이며, 곧 ‘구글 이 신(神)이 된 세상’이다.

빅데이터 알고리즘이 인간의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측하게 된다면 인간은 빅데이터의 결정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인류가 ‘빅데이터’라는 새로운 종교에 종속될지도 모른다는 설명이다.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생체 인식 센서는 의학 분야를 완전히 변화시킬 것이다. 아직도 수억 명의 빈곤층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한다. 수십 년 후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 미국 대통령보다 더 나은 의료를 제공받을 것이

<호모 사피엔스> 중 극히 일부만 <호모 데우스>로 업그레이드 된다

다. 병원을 만들거나 수백만 명의 의사를 교육시킬 필요도 없다. AI(인공지능) 의사는 정글의 한가운데에 살고 있어도 24시간 365일 몸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AI 의사는 암이 처음 발생하는 순간 발견해낼 것이다. 그것도 쉽고 저렴하게.

또한 의학은 개념적 혁명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20세기 의학은 병을 고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21세기 의학은 점진적인 건강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부자와 빈자 사이에 새로운 큰 격차를 열어놓을 위험이 있다.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평등주의적이다. 대조적으로 건강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소수를 위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인류는 ‘초인간(superhuman) 엘리트’와 하층의 일반적인 ‘호모 사피엔스’로 나뉠 수 있다. 역사상 처음으로 경제적 불평등은 생물학적 불평등으로 바뀔 것이며, 부자들은 가난한 이들과 차별화된 우수한 신체적, 정신적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 [매경 특별 인터뷰: ‘데이터 소유가 곧 권력...구글이 신이 되는 세상 온다’에서 발췌]

기독교의 영혼불멸은 허구이며 앞으로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할

<호모데우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의 종교관은 무신론자의 입장에 있다. 그에 의하면 종교를 창조한 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기에, 인간이 믿는 신(神) 또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신’이라는 것이다. 신은 인간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하며, 인간 상상력은 생화학적 알고리즘의 산물로서 데이터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18세기에 인본주의는 신 중심적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신을 밀어냈다. 21세기에는 인간 중심적 세계관에서 데이터 중심적 세계관으로 이동함으로써 소위 인공지능에 의존하는 종교 즉 ‘데이터’가 세상을 지배할 것이라고 유발 하라리는 예견한다.

유발 하라리의 주장에 의하면 기독교인은 이슬람교이든 신앙인의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존속한다는 ‘영원한 영혼(eternal soul)’은 인간이 발명한 가상의 이야기이며, 이러한 허구의 이야기에 목숨을 거는 자들 즉 천국을 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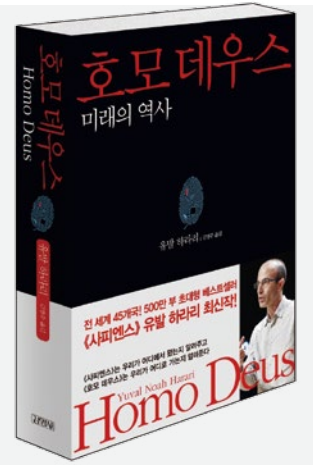
는 사람들에게 핵무기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왜냐하면 현재보다도 사후세계의 내세를 중시하는 신앙인들은 지구가 폭발하거나 인류가 괴질로 멸절하더라도 믿는 자들만은 그들의 육신에서 빠져나온 영혼이 우주에 있는 천국으로 이동하여 또 다른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승리제단에서는 원래 인간은 초월적  
인 존재,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밝힌다

승리제단에서는 사후천국의 허구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한다. 죽은 자의 내세가 살아 있는 자의 현세라는 것을 생물학적인 피의 원리로 정확히 설명한다. 죽은 조상들의 몸은 썩어서 흙이 되었지만 살아있는 자식들에게 그들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의 생명은 자식 속에서 연명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적으로나 과학적으로나 생명이 곧 피요, 피가 영(靈)이고 죽은 사람의 영혼 또한 현재 살아 있는 자식 속에 있는 것이다.

그리고 늙은이건 젊은이건 인간의 부모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인간은 하나님이어야 맞다. 그런데 현재 인간은 하나님으로서의 구실을 못하고 병들어 죽기도 하고 늙어가는 부자유스런 몸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여 하나님이 인간으로 타락하게 되었는지 그 근본원인을 밝혀서 설명해줘야 진정한 종교요, 인간을 다시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는 방법을 논하고 치료하는 하나님의 빛을 무한히 제공하는 자가 진정한 인류의 구세주임에 틀림없다.

미래교육자 강충인 교수에 의하면 급변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 AI(인공지능)는 인간 일자리 60%를 5~10년 사이에 빼앗아 갈 것이라고 한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호모 사피엔스에서 호모 데우스로 업그레이드되지 못한 수많은 인류가 ‘임여 인간들(useless humans)’로 치부될 가능성이 높다. 피가 영(靈)이고 죽은 사람의 영혼 또한 현재 살아 있는 자식 속에 있는



체 계급사회’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예측한다. 그런데 인간의 끝없는 욕망을 제어하지 못하면, 마치 오늘날 인간이 동물을 지배하듯이 초인간(호모 데우스)이 평범한 인간(호모 사피엔스)을 시종 드는 노예로 부리게 될 것이다.

인간이란 개체는 ‘알고리즘의 집합체’일 뿐 더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못하는 게 생물학계의 정설이며, 인간의 알고리즘을 더 잘 이해하는 기계들이 나오면 극소수의 지배층과 알고리즘의 기계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신간 <호모 데우스>에서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승리제단에서는 모든 인간이 원래의 하나님으로 거듭나게 하는 새로운 종교의 장을 열고 있으니, 미래에 호모 사피엔스의 노예화나 임여인간으로의 전락(轉落)은 없을 것이다.\*

박태선 기자